

특집논문

3

빈곤문제와 한국교회의 역할

The Problem of Poverty and Its Role of Korean Church

강춘근(한국성결교회 담임)

I. 들어가는 말

II. 빈곤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 1) 빈곤의 개념
 - 2) 빈곤의 원인
2. 빈곤에 대한 관점과 빈곤유형
 - 1) 빈곤에 대한 관점
 - 2) 빈곤의 유형

III.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관점
 - 1)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
 - 2)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관점
2. 빈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교회의 빈민사역
 - 1) 빈곤에 대한 성경적 이해
 - 2) 빈민사역과 교회

IV.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1. 빈곤의 실태와 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 1) 빈곤의 실태
 - 2) 정부의 빈곤정책에 대한 평가
2. 빈곤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 1) 사회참여자로서의 교회
 - 2) 빈곤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3.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V. 나가는 말

Abstract

The Problem of Poverty and Its Role of Korean Church

by Chun Geun Kang

Poverty is the most important theme of social welfare and a serious social problem in the society since the history of human being. Also social welfare is the core professional field to solve the problem of poverty. Accordingly, Church in local community can support social welfare service directly through the last fort of a social safety net in connection with the problem of poverty, and also carry out social service action on a level complementary and supplementary for the purpose of development, reformation about any structure vulnerability of social welfare system of the government. For these services can approach on a level of social justice as well as missionary dimension for the problem of poverty from church. Therefore I believe that church can has a role to support the alternatives and consider from a missionary standpoint about social problem rooted in the problem of pover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has examine a role Korean church with method of solution about the problem of poverty in connection with social engagement on church. To bring about this purpose, First of all, I will look around concept, cause, viewpoint and type of poverty. Second, For the problem of poverty, I will observe biblical meaning and point of view in the poor in christianity for adopting in church situation. Third, I will look into christianity understanding about poverty and how to church accomplished its ministry for the poor.

And I will be a valuation on the policy of poverty and the actual condition of poverty in Korean society recently. Then I will suggest

two sides on what does Korean church has a role in social engagement of church, which is the last fort of a social safety net. In the side of social action, a role of church has a rule supporter of social action, a crisis manager, an issue initiator. In the side of social service, our church has a provider of service, a financial supply, a program developer, a case manager, a social educator and a manager for volunteer. For those reasons, social engagement of church must perform mutual aid between the side of social structure and the side of social service.

Finally, Korean church must proclaim the Gospel of consolation, hope and courage to the poor in crisis, and share our resource with church generously. Now Korean church will come true the justice of God not only through proclaiming the love of God, but also through positive action of social engagement in sharing it with whole body.

Key words: 빈곤, 빈곤선,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주관적 빈곤, 사회안전망

I. 들어가는 말

최근 빈곤으로 인한 생계형 자살이 크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전보다 빈부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청년실업자, 신용불량자, 비정규직, 농민 등 이른바 '신빈곤층'이 등장하고 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 표현되는 생계형 자살이 연일 이어지자 보건복지부는 급기야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극빈층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몇몇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러한 대책이 문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임시적인 지원에만 치중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어쨌든 그동안 드러난 생계형 자살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나아가 사회안전망과 노동시장구조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시장실패와 마찬가지로 정책실패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응 방안이 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빈곤에 대한 문제의 해결 방안이 사회복지의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의 접근 모두를 통해

1) 지난 8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 보호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달 동안 단전, 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하거나, 본인 및 주변의 신고접수 등을 통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누락을 막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도 경로연금과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는 그 다음날 정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맹비난을 하면서 정부의 발표가 문제의 본질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봉책으로 '신빈곤종합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2)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인 류정순은 7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IMF 이후 한국사회의 신빈곤과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기조발표에서 "사회보험제도의 확충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등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빈곤층이 늘고 있다"면서 "외환위기 사태발생이 시장실패 현상이었다면,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불평등과 빈부격차 심화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책실패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심각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또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문분야가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다. 옛말에 빈곤은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였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아무리 잘 사는 사회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있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부유층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운 생활 속에 생계조차 영위하기 어려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빈곤층은 수수방관해야 할 대상인가, 아니면 적당히 큰 문제거리만 좀 완화해주고 말아야 할 대상인가? 빈곤문제가 단순히 가족과 이웃의 문제라면 사회에서 빈곤으로부터 사람을 돕거나 빈곤에 빠지는 것을 막는 사회보장 장치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가 애써 강구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실제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나 빈곤을 자유롭게 개개인에게 방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빈곤층에 대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³⁾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는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⁴⁾로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물론 정부의 사회복지제도의 취약점

3) 사회안전망이란 노령, 질병, 실업,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통 사회보장제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공식적인 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반면에, 사회안전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사용되는 맥락에 있어서도 IMF 관리체제하에서 처럼 대량의 실업이 발생하여 기존의 공식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 대처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흔히 사용된다.

4)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pp. 28-29. 교회의 사회안전망은 생명신학적 차원에서 생명안전망의 의미를 지니며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최후 보루로 기독교계의 사회구조개혁적 책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박종삼은 사회안전망을 4계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제 1사회안전망을 가족체계, 제 2사회안전망을 국가의 사회보장체계, 제 3사회안전망을 민간사회복지체계, 그리고 이들의 생명을 최후로 지켜주는 제 4사회안전망을 교회로 보았다.

에 대한 개선 및 개혁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특히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자선을 통해 사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회는 사회의 문제를 교회의 선교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인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시대적 아픔에 놓여 있는 우리 이웃과 사회의 불행을 절대 외면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서적인 가르침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의 섬김과 이웃을 향한 나눔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이고 교회가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체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경제와 사회질서에 대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교회의 도덕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빈곤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사회학적 접근, 사회복지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또 그 내용은 주로 빈곤의 정의와 범위, 빈곤의 현황과 원인, 추세, 빈곤의 유형, 형태 및 요인, 소득 분배와 불평등의 문제, 부의 재분배 문제, 하위문화로서의 빈곤과 일탈,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성에 대해 논의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빈곤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관련하여 빈곤의 동태적인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빈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제시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한편 라인홀드 니이버가 교회를 ‘사회복지의 어머니’라고 표명한 것처럼 교회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사회복지사업의 중요한 공급주체가 되어 왔다. 또 교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복지의 보충적이고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인간

5) 빈곤의 동태적인 변화에 대한 최근의 실증연구로는 박순일, 최현수, 강성호(2000)가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추세 및 결정요인과 빈곤으로의 진입, 탈출 및 빈곤기간에 관해 포괄적으로 연구하였고, 금재호, 김수택(2001)은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빈곤의 결정요인과 동태적인 이행에 관한 분석이 있었고, 또 황덕순(2001)은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을 수행하였다.

문제에 있어서의 전문가인 교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빈곤문제와 같은 사회 현안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신빈곤층과 관련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빈곤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빈곤에 대한 관점과 빈곤유형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빈곤의 문제를 교회적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관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교회의 빈민사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한국사회의 빈곤실태와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로 볼 수 있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차원에서 빈곤문제 해결 방안으로서의 한국교회의 역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빈곤에 대한 이론적 이해

1. 빈곤의 개념과 원인

1) 빈곤의 개념

빈곤이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가운데 불명확한 많은 개념들 중 대표적인 것이다. 또 빈곤의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

6) 필자는 교회가 사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문제를 복지와 구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곳이 교회라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주고 고통과 질병 그리고 고민과 생활고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목민센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본다.

나서 교육, 건강, 비행, 불평등, 기회 등의 사회적 조건과 자원의 결핍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빈곤⁹⁾으로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빈곤선(poverty line)¹⁰⁾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이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 영역이었으나 경제발전에 의한 생활 수준의 향상과 함께 상대적 빈곤 및 주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빈곤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되며 빈곤을 및 빈곤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구가 빈곤가구인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2) 빈곤의 원인

빈곤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다르듯이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론적인 입장들이 있다. 빈곤은 해당 사회와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와 시대에서의 빈곤은 다소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빈곤을 초래하는 요소들에 역점을 두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빈곤상태를 존속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기도 한다. 따라서 빈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데¹¹⁾ 빈곤에 관한 연구를 거듭해 온 많은 학자들이 각자 그 원인의 분석을 다르게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빈곤이 실제적으로 경제적 영역 밖에서 기인한다고

9)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과학적'으로 결정되든 '정치적'으로 결정되든 제3자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든 어떠한 객관적인 수준이 정해진다면, 주관적 빈곤은 객관적 기준이 없이 주관적 판단에 근거해 정의되어지는 빈곤을 말한다. 여기에는 여론조사에 의한 방법과 Leyden 방식이 있다.

10) 빈곤선은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빈곤인구를 규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측정방법으로 계층구조상에서 하위에 위치하고 있는 일차적인 기준을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여부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 즉 최소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수입이나 지출을 말한다. 이 빈곤선은 절대적 빈곤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계비와 같은 화폐소득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오늘날 이에 대한 비판이 많다.

11) 이두호 외, 『빈곤론』, (서울: 나남, 1991). 인간이 왜 빈곤하게 되는가 하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4장을 참조하십시오.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성이나 개인의 심적 태도, 정신적 빈곤 등에서 기인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¹²⁾ 실제 우리나라에서 연구된 빈곤의 요인분석을 보면 빈곤의 원인을 생활능력을 상실케 하는 노령, 불구, 폐질, 장애, 결손가정등 피치 못할 사정 이외에 기능 및 교육 부족과 이를 유발시킨 태만, 무책임,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¹³⁾

그러나 보통 빈곤의 원인을 살펴보면 지정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국민성의 원인, 개인의 심적 원인으로 분류하기도 하고,¹⁴⁾ 또 다른 차원에서 빈곤의 원인을 심리주의적 관점, 기능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¹⁵⁾ 이러한 빈곤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관점' 과 '구조적 관점' 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빈곤의 원인을 개인 및 사회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신빈곤층 발생은 개인적인 문제보다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빈곤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빈곤원인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또 빈곤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왜 빈곤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의 기초위에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교회가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수행해왔던 무작정 자선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빈곤의 원인 즉 개인적인 문제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쟁점의 토대 위에 빈곤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본다.

12) 박용순, op. cit., 27

13) 박순일 외 5인, "우리나라 빈곤과 요인분석과 대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p. 51

14) 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p. 31.

15) 김영모 외 2인, "한국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 1집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p. 12

2. 빈곤에 대한 관점과 빈곤유형

1) 빈곤에 대한 관점

여기서는 빈곤문제의 다각적인 이해와 접근을 위해 빈곤원인을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¹⁶⁾ 첫째, '문화적 관점'이다. 이것은 빈곤층의 태도와 가치유형이 독립성을 가지며 사회의 다른 지배적인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빈곤문화적 특성은 대개 빈곤현상에 적용된 낮은 열망수준으로 나타나며, 사회화를 통해서 세대간에 전승되고 있다. 둘째, '상황적 관점'이다. 이것은 빈곤층의 행위 유형 자체가 지배적인 사회구조에 의하여 이들에게 불리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의 적응양식과 연관된다는 관점이다. 즉 빈곤이 문화가치의 내적인 결정이 아니라 상황적 요인에 의한 외적인 결정의 결과로 간주되고 있다. 셋째, '관계적 관점'이다. 이것은 빈곤문화를 일단 인정하고 있지만, 빈곤문화가 독립된 문화라기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집단에 종속된 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즉 빈곤문화를 빈곤층의 고유한 내적 속성이라기 보다는 비빈곤층의 빈곤층에 대한 외적 규정인 낙인의 결과로 본다는 것이다.¹⁷⁾ 넷째, '갈등적 관점'이다. 이것은 제도나 구조결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빈곤층이 권력이나 권위를 적게 가짐으로써 자원에 대한 통제력이 박탈된 결과로 빈곤이 기인하다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빈곤층의 문화적 속성을 단순히 자본주의적 경제구조상의 모순인 불평등관계의 반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¹⁸⁾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빈곤의 원인을 '문화적 변수'와 '구조적 변수'로 대별할 수 있다. 즉 문화적 변수는 열망수준이 가장 대표적인 요인

16) 박용순, op. cit., pp. 31-32.

17. T. J Sullivan et al., Social problems : Divergent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1980), p. 378.

18. V. George & P. Wilding,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4), p. 40.

를 가지고 있어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며, 각 학문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되고 있고, 학자에 따라 다른 준거들과 관점을 가지고 접근되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빈곤 개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빈곤을 '개인과 가족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의 결핍 및 기타 사회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원의 결핍'이라고 할 수 있다.⁷⁾

또한 빈곤 개념을 욕구(needs)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할 때 쟁점이 되는 것은 욕구와 충분이라는 용어이다. 인간의 욕구는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욕구는 물질적 욕구와 비물질적(정신적) 욕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빈곤을 개념화하는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욕구를 모두 고려해야 하느냐의 쟁점과 더불어 물질적 욕구든 정신적 욕구든, 기본적 욕구든 모든 욕구든, 이러한 욕구가 어느 정도 만족되어야 충분한 것인가 하는 것도 빈곤 개념에 대한 커다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 욕구와 비물질적 욕구 중 어떤 욕구가 충족되어나 하느냐의 문제와 욕구 충족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충분한가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일차적인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서의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⁸⁾으로 구분한다. 최근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개념을 벗어

7) 박용순, 『빈곤과 자립』, (서울: 학지사, 2001), p. 25.

8) 절대적 빈곤은 최저 소득수준을 뜻하는 말로 빈곤선이라는 용어로 자주 설명되는데, 이때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수준 이하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이 빈곤은 자원과 생활양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소득과 신체적 효율성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으며, 흔히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는 빈곤을 말한다. 그러나 특정사회 가치기준에 따라서 달리 결정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상대적 빈곤은 한 사회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지칭한다. 상대적 빈곤은 경제적으로 볼 때 절대적 빈곤보다 나은 상태에 있고 대체로 생존적 빈곤을 벗어났다고 볼 수 있으나, 한 사회에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 선상의 안팎에서 생활하고 있고, 교육, 주거 혹은 보건생활 중 어디에선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다른 생활분야의 최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또 약간의 경제적 실패나 위협의 노출에 대해서도 절대 빈곤층의 높으로 밀려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고, 구조적 변수는 기회구조, 권력구조, 시장구조가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빈곤원인의 네 가지 관점을 도표로 제시하면 <표 1>과 같다.¹⁹⁾

<표 1> 빈곤 원인의 네 가지 관점

관점 \ 구분	원인변수	빈곤의 요인	인간관계 특성
문화적	문화적 변수	열망수준, 가치규범, 사회화	문화결정론
상황적	구조적 변수	기회구조, 열망수준, 인구과밀	상황결정론
관계적	문화적 변수	규범, 가치, 열망수준	상호작용과정론
갈등적	구조적 변수	권위, 시장구조, 자본관계	정치경제결정론

* 자료: 김영모, 원석조, 황민수, 한국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1집),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빈곤의 원인에 대한 네 가지 관점과 더불어 원인 변수에 대한 이해는 교회가 빈곤문제를 접근하고 개입하는데 있어 그 태도와 방향을 매우 신중하고 선택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복지의 보완적이고 대리적인 역할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지만, 상황적인 관점이나 갈등론적 관점에서는 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도적인 접근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행동을 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빈곤의 유형

빈곤의 유형은 빈곤원인의 네 가지 관점과 연결하여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는 빈곤원인의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분류한 디니토와 다이(D. Dinitto & T. Dye)가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을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²⁰⁾ 첫째,

9) 박용순, op. cit., p. 31.

20) D. M. Dinitto & T. R. Dye,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3), pp. 45-60. 재인용, 박용순, op. cit., pp. 32-32.

‘박탈로서의 빈곤’ (poverty as deprivation)은 흔히 절대적 빈곤과 동일한 의미로서 음식, 주택, 의복, 의료보호 그 밖의 생활수준의 유지 등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빈곤은 일정한 생활의 기준에 대한 이하, 즉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절대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박탈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탈적 빈곤은 일정한 빈곤선인 저소득선 이하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박탈’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물질적 욕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해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불평등으로서의 빈곤’ (poverty as inequality)은 빈곤을 소득분배의 불평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빈곤은 절대적인 박탈의 수준과 연결시키지 않고 상대적 박탈에 초점을 둔다. 상대적 박탈은 특정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들이 누리는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로서 불평등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즉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수입과 재산을 적게 소유함으로써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 빈곤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셋째, ‘문화로서의 빈곤’ (poverty as culture)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생활의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화적 빈곤의 개념은 단지 저소득뿐만 아니라 이질감, 소외, 무관심, 동기부족, 자긍심 부족 등의 태도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빈곤문화에 젖어있는 빈민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조직체를 만들지도 않고, 사회적 흐름에 적응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으며, 항상 주변인의 위치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가 빈민들로 하여금 상층이동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선용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착취로서의 빈곤’ (poverty as exploitation)은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로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가 갠스(H. Gans)인데, 그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빈곤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본다.²¹⁾ 따라서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21) H. J. Gans, "The Uses of Poverty : The Poor pay All," Social Policy, Vol. 2, (1971), pp. 20-24.

중간 혹은 상층계급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 계층은 자신의 노력, 유용한 기능, 사업운영 등으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쉽게 빈곤계층과 협조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빈곤의 4가지 유형은 빈곤의 결정요인²²⁾과 관련하여 근로능력²³⁾의 유무와 근로의욕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영모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4 가지 유형으로 접근하고 있다.²⁴⁾ 첫째, 제 I형은 '만성적 빈곤'으로서 개인의 열망수준이 낮고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이다. 둘째, 제 II형은 '나태적 빈곤'으로서 근로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열망수준이 낮아서 빈곤한 경우이며, 셋째, 제 III형은 '불행한 빈곤'으로서 근로능력은 없으나 열망수준은 높은 빈곤의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제 IV형은 '박탈적 빈곤'으로서 근로능력도 있고 열망수준이 높은 빈곤의 경우이다.

이같은 빈곤의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빈곤의 유형

구분		근로능력	
		무	유
열망수준	무	제 I형(만성적 빈곤)	제 II형(나태적 빈곤)
	유	제 III형(불행한 빈곤)	제 IV형(박탈적 빈곤)

22) 빈곤의 요인을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의 동기부족, 게으름, 의타심, 부적응 등의 요인과 구조적 차원에서의 사회구조의 모순, 사회제도의 결여, 기회의 제한 등이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인적 차원에서 볼 때 근로에 대한 열망수준으로 측정이 가능하며, 그 외의 구조적 변수는 간접적인 추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구조적 변수 중 기회구조는 개인적인 근로능력이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직접적인 면접조사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열망수준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빈곤하다면, 일단 기회 구조의 제한이 그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3) 여기서 말하는 근로능력이란 숙련된 기능의 보유를 중심으로 교육을 통해서 기능의 유용성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또 신체적 장애가 없고, 기술적 근로능력과 신체적 근로능력을 모든 갖춘 경우를 말한다.

24) 김영모 외 2인, op.cit., p. 16.

따라서 이같은 빈곤의 유형화를 통해서 자립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우선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근로능력이 있는 '나태한 빈곤자'에게 심리적 소외감, 박탈감, 무관심 등을 극복하도록 심리적인 서비스가 요구되며 개인적으로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열망 수준은 높으나 근로능력을 갖추지 못한 '불행한 빈곤자'에게는 기능교육을 통한 자립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 '박탈된 빈곤자'는 그 동안 활동기회가 부족하여 빈곤한 삶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합한 자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지원해 준다면 충분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자활보호대상자로 저소득층 대상²⁵⁾중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상실된 나태한 빈곤자와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으나 활동기회의 부족으로 빈곤상태에 있는 자들은 자립가능한 대상자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는 실제적인 자립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빈곤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빈곤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빈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에 대한 욕구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처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의 유형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사회안전망에 대한 대안이나 접근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²⁶⁾

25) S. Balkin, *Self-Employment for Low-Income People*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9), p. 5. 저소득층 대상은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발킨은 자영업 활동을 통해서 자립가능하다고 보는 저소득층을 여섯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근로의욕은 있으나 자원 및 경험이 없는 자, 둘째, 근로 능력이 있는 실업자, 셋째, 새로운 직업에 관심이 있는 자, 넷째, 자신의 생활패턴을 개선하고 융통성을 가진 자, 넷째, 자신의 생활패턴을 개선하고 융통성을 가진 자, 다섯째, 일반적 취업보다는 자영업을 원하는 자, 여섯째, 자영업 경험을 가진 권위적인 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26) 박용순, *op. cit.*, pp. 34-35.

III.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빈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1.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관점

1)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의미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누구인가?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아니(ani). 아나우(anaw), 에브론(ebyon), 달(dal), 그리고 라스(ras)이다. 아니(ani)와 원래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아나우(anaw)는 '부당한 일을 당해 가난해지거나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을 의미한다.²⁷⁾ 에브론(ebyon)은 자비를 애원하는 거지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달(dal)은 가난하고 수탈당하는 소작농과 같이 힘없고 약한 사람을 의미한다.²⁸⁾ 이에 비해 라스(ras)는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용어이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억압을 집요하게 비판하면서, '에비온', '아니' 그리고 '달'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신약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프토코스(ptochos)인데, 이 단어는 거지와 같이 완전히 가난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아니(ani)와 달(dal)에 해당하는 헬라어이다.²⁹⁾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일차적인 의미는 흔히 재난이나 어떤 형태의 억압에 기인하는 빈곤한 경제상태와 관련이

27) Ernst Bammel, "ptochos," in Ge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Geoffrey W. Bromiley,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8), 6:888. 이후로는 TDNT로 불림

28) A. Gelin, *The Poor of Yahweh*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64), pp. 19-20.

29) TDNT, VI, 885ff. 페네스(Penes)는 단 한번 사용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천한 노동자를 뜻한다(TDNT, VI, 37f)

있다. 또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가르친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자'에 대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재난 또는 착취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가난해진 자이다.³⁰⁾

존 스토티(John Stott)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의 주된 함축 의미를 3 가지로 구분한다.³¹⁾ 첫째, 경제적으로 말해서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을 박탈당한 '가난한 자들'이다. 이들에 대해 성경 기자들은 종종 빈곤이 그들 자신의 죄때문이거나, 아니면 나태, 방탕, 폭음, 폭식때문일 수 있음을 인정한다.

둘째, 사회학적으로 말해서 인간적 부정의의 무력한 희생자들인 '억압된 빈곤자들'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죄, 즉 사회적 부정의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같은 상황은 가난한 자들 자신이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입장에 처해있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악화될 수 있다.

셋째, 영적으로 말해서 자신들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구원을 바라는 '겸허한 빈곤자'들이다. 같은 인간들에 의해 억압을 당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자유케 하는 데는 무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 안에 둔다. '가난한 자'가 '경건한 자'와 동의어가 되었고 그들의 사회적 조건이 영적인 의존성의 상징으로 되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할때 성서의 전체적인 가르침은 가난한 자들만을 편애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³²⁾과 동시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

30) R. C. Sproul, "Who Are the Poor?" Tabletalk 3, no (July 1979)에서 게으름, 재난, 착취, 자발적 선택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구별하는 유익한 지침을 보라.

31) John R. W. Stott,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pp. 273-279.

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들을 구하시고, 무력한 빈곤자들을 옹호하시며 또한 겸허한 가난한 자들을 높이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궁핍의 진토가 되었던, 아니면 압제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든간에 “여호와와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³³⁾

2)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관점

데이비드 클레어 바우(David Claerbaut)은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를 시사하는 구절이 400군데 이상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사실은 성경적 관점에서 가난한 사람을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마우(Richard Mouw)는 성경적 관점에서 가난한 자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³⁵⁾

첫째,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 견해는 창조이야기에 근거한 것으로 가난한 자를 낭만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가난은 기술과 기회가 결핍된 결과로 나타난다. 가난한 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 한번의 ‘도움’이다.

둘째, 반역하는 존재다. 이 견해는 가난한 자들이 가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정의하는 근거로서 타락 이야기를 의지한다. 가난한 자들은 나쁜 기회를 선택한다. 그들은 복음을 수용하여 일하며 더 나은 기회를 고를 필요가 있다.

32) Ronald Sider,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한화릉 역, (서울: IVP, 1998), p. 99. 저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라는 의미에 대한 오해를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다. 더 자세한 것은 3장 ‘하나님과 가난한 자’를 참조하시오.

33) 존 스토틀, *op. cit.*, p. 286.

34) Claerbaut, David., *Urban Minist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교회사회사업』, 이준우 역,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p. 88.

35) Richard J. Mouw, “Thinking about the Poor”, *Prophetic Vision and Economic Realities* (Grand Rapids: Eerdmans, 1989), pp. 20-34.

셋째, 그리스도께서 화육한 존재이다. 마 25장에 근거한 견해로 성육신과 '가난한 자의 고통받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는 마더 테레사의 견해에 중심을 두고 있다. 가난한 자는 사랑과 관계가 결핍되어 있다. 이들은 소속된 곳이 없다. 이들은 동행이 필요하므로 발전사역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이다. 이 견해는 선지문학과 출애굽 이야기에서 근거한다. 가난한 자는 복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들은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이들을 가난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사회체계에 억압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는 정의와 본연의 목소리를 찾는데 있어야 할 도움과 경제와 정치체제에서 적응하기 위한 공간이 요구된다.

다섯째,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이다. 이것은 마우의 유형론에 마이어스가 첨가한 견해로 현대세계의 영적 물질적 영역사이의 이분법을 반영하며 부분적으로는 복음서에 근거하고 있다. 가난한 자는 잃어버린 존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도래하는데 머지 않아 나타날 것이다. 가난한 자는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적 관점

가난한 자에 대한 견해	신학적 배경	성경의 주요 본문	표현	가난한 이유	기독교적 대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	창조	창세기1-2장	창조적인 자, 예술 작품,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광을 보라	기술, 지식의 결핍	일매를 맺고 생산적인 존재가 될 수 있게 한다.
반역하는 존재	타락	창세기3장 잠언	계으른자, 나쁜 기회를 만든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그들의 문화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더 나은 기회를 만들도록 격려한다.
그리스도께서 화육한 존재	성육신	사복음서	가난한 자의 피로운 모습을 취하신 그리스도,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를 위해 너는 무엇을 했느냐	사랑의 결핍	동행하며 가능한대로 고통을 덜어준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	선지자적 종말론	출애굽기, 선지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해방신학	가난하지 않은 자들의 억압, 구조적인 가난	정의를 위해 일하며 가난한 자들이 본연의 목소리를 찾아 사회, 정치, 경제체제 안에 적응하도록 도와준다.

〈표 3〉 계속

가난한 자에 대한 견해	신학적 체계	성경의 주요 본문	표현	가난한 이유	기독교적 대응
영혼을 잃어버린 존재	구원 구원론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더 나은 미래는 영원 속에 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함	복음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들이 응답하도록 격려한다

* 성경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마우, 1989, 20-34, 재인용 브라이언트 L. 마이어스, 108)

이러한 관점의 유형을 살펴볼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사용하는 데 선택적인 경향을 보일 수가 있으며, 또 그러한 태도로 인해 가난한 자가 이미 구원을 받았거나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견해를 지지할 수 있고, 또 이 모든 이미지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포함시킴으로써,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켜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빈곤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교회의 빈민사역

1) 빈곤에 대한 성경적 이해

성경에서는 '가난' 혹은 '빈곤' 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계으름 때문에 생기는 악으로 본다(잠언 6:6-11). 또, '가난' 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벌' 로 의미하기도 한다(레26:14-26).³⁶⁾ 이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가난과 빈곤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자리잡고 있는 '악' 이며 '혼란' 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좋은 창조 세계를 원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빈곤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성경은 가난과 빈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

36)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극심한 가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시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그들의 죄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가난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벌이기도 한 것이다.

사와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은 메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것은 빈곤과 가난이 일종의 고난의 형태라면 가난과 빈곤이 메시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이사야 53장).

나아가 빈곤을 메시아적인 고난의 한 측면으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생활 속의 '덕'으로 나타나고 있다. 끝으로, 빈곤과 관련한 부의 관계성의 문제인데, 성경에서는 부를 직접적으로 죄와 동일시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와 재물 자체를 배척하지 않으신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유한 자들에게 부에 대한 모든 조건적인 집착을 포기하라고 훈계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볼 때 성경적인 빈곤 이해는 통전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빈곤과 가난의 이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또 가난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출발하고 있다. 또 개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죄, 나태, 재난 또는 어떤 형태의 억압으로 말미암은 착취로 인한 열등한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지위와 관계를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자발적인 빈곤³⁷⁾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한다. 또한 빈곤이나 가난을 바라보는 각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기에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³⁸⁾ 그러므로 교회가 빈곤문제를

37) 이 개념은 예수의 삶을 모델로 삼아 자신의 재물과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기독교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빈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경제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빈곤개념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이다. 이들은 빈곤을 깨끗하고 가치있는 삶으로 간주하였고 높은 정신적 가치의 표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회적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 개념은 주로 중세시대에 만연하였다.

38) 가난은 사람의 전 분야를 포함하는 복합적 사회문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난에 관해 말할 때 가난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현상임과 동시에 여러 개의 전문분야의 협력이 요구된다. 즉, 인류학, 사회학, 사회심리학, 사회복지학, 영적분별, 신학의 도구들이 모두 훌륭히 융합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 분야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빈곤의 복합적인 제 원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빈곤에 대한 제 분석과 적용 그리고 실천도 각자의 세계관과 신학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³⁹⁾는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2) 빈민사역과 교회

성경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에 계시던 예수가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 자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한 예수의 삶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고 약한 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즉 가난한 자들은 먹여졌고, 죄지은 자는 용서함을 얻었고, 약한 자는 강화되었고, 죽어가는 자는 살려내심을 입었다.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자의 편을 들면서도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아픔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하셨다.⁴⁰⁾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은 교회의 빈민사역에 대한 동기와 관심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교회 역사에서 빈민에 대한 사역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결코 잊혀지지 않았던 일이었고 교회 현존의 결정적 표지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의 증거와 실천은 예수의 승천 후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펼쳐 온 일들 중 가장 매력을 끈 활동이었다.⁴¹⁾ 특히 초대교회에서는 빈민의 대표적인 성격을 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성의 특징으로 제시

39) 보수주의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처한 불행은 가난한 사람들의 탓으로 돌리고, 자유주의자들은 그러한 견해를 몰인정하고 예속된 것으로 치부한다. 자유주의자들은 빈곤자를 비난하기보다는 가난을 창출해내는 사회구조를 정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보수주의자들은 성, 마약, 알콜, 직업에 대한 잘못된 선택이 가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지나치게 동정적인 자유주의자들을 비난한다.

40) Jane Ferguson, "지역교회 현장에서의 사회사업 실천", 『교회사회사업』, 이준우 역,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p. 86

41) Eloy Bueno de la Fuente, 『선교학』, 김광태 역, (서울: 생활성서, 2003), p. 301.

되었고, 가난한 사람들과 과부들을 구제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이기도 하였다. 사도들은 특별히 빈민들에 대한 구휼에 관심을 갖고 빈민구제를 위해서 집사를 선출하기까지 했다.

교부시대에는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교훈과 삶을 본받아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억눌린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을 친히 도우며 신자들에게 그들을 직접적으로 도울 것을 강조했다.⁴²⁾ 또 교부시대의 중요한 문서인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에서는 아무에게나 자선을 베풀지 말고 절실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아내어 자선을 베풀며, 자선의 대상을 신중히 물색하라고 가르친다.⁴³⁾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초대교회를 이어 교부시대의 영성생활의 핵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세시대에는 빈민에 대한 자선을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을 정도였다.⁴⁴⁾ 특히 중세교회는 십일조와 개인들의 기부금을 모아 빈민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부자와 빈민 사이의 증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빈민구제를 맡은 교회조직은 크게 구교교회와 수도원으로 나뉘어졌고, 4-6세기 경에는 교회가 모든 빈민들의 예산을 직접 관할하였고, 또 빈민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책무도 함께 맡았다. 또 교회는 빈민들의 교육에도 많은 배려를 하였다.⁴⁵⁾ 따라서 중세에서의 빈곤은 기독교의 전통과 교리안에서 해석

42) 기독교대백과사전 제1권 (서울: 기독교문사, 1994년 증보판), p. 1108; 김성광, 『초기 교부들의 신앙과 신학』, (서울: 강남출판사, 1997), p. 13. 폴리캅은 교회의 직분자의 생활태도나 영성생활의 자격에서 당시 빈민의 대명사였던 과부들에게 생활태도를 가르쳤으며, 클레멘트는 검소한 생활과 부의 공유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가난한 자의 요구를 부한 자가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간에 예측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

43) 정양모, 『열 두 사도들의 가르침』, (예관: 분도출판사, 1998), p. 21.

44) Michel Mollat, *The Poor in the Middle Ages: An Essay in Social History*, trans. by Arthur Goldhammer, Yale University, 1986, pp. 251-265; 재인용,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서울: 한물, 2002) p. 116.

45) 허구생, *op. cit.*, p. 49-51.

되면서 특별한 성격을 부여받기도 하였다.⁴⁶⁾ 한편 빈곤에 대하여 영적인 가치를 부여하였지만 빈민에 대한 경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기조차 했던 집단적 태도 또한 끈질기게 지속되었다. 따라서 사회 일각에서는 빈곤을 깨끗하고 가치있는 삶으로 간주하는 청빈의 이상이 추구되고 자선의 의무가 강조되었지만, 빈민에 대한 뿌리깊은 경멸적 태도를 없애지는 못했다.⁴⁷⁾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빈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어 왔지만 대체적으로 간접적인 자선의 제도화와 함께 빈민구제와 빈민의 권익보호에 대한 집단적 책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교회의 기능을 보다 조직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라인홀드 니이버는 '교회는 사회복지를 낳고 키운 어머니' 라고 말하였다. 또한존슨(Ernest Johnson)도 니이버가 말한 교회가 '사회사업의 어머니'라 슬회하면서 사회사업이라는 전문분야가 생기기 훨씬 전에 교회는 사람들의 욕구,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과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⁸⁾ 또 우스틀릭(Harvy Oostlyk)은 교회의 이러한 사역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이유를 제시하기도 하였다.⁴⁹⁾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간에게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빈민을 향한 것은 이러한 증거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육체적인 재난과 영적인 긴급성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의한 관계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행위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곧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위

46) Ibid, p. 14.

47) Ibid, p. 19.

48) Johnson, F. Ernest, protestant social work. In R.H.Kurtz (Eds.) Social work year book.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41. pp. 403-412: 재인용, 이준우 역, op. cit., p. 89-90.

특히 사회적 약자인 빈민을 섬기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리고 빈민을 향한 교회의 태도는 교회내의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임의의 행위가 아니라 교회를 신뢰하게 하는 본질적인 형태로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역사에 드러난 것처럼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고 실천하기 위한 훌륭한 체제라고 말할 수 있다. 또 교회는 성서의 가르침과 더불어 가난한 자를 포함하여 사회의 약자를 돕는 교회 전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교회는 사회의 가난한 자나 빈민에 대한 관심을 단순히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근원적인 문제해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는 빈곤문제나 빈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위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IV. 빈곤실태와 빈곤문제에 대한 교회의 사회참여

1. 빈곤 실태와 정부 정책

49) Oostlyk, Harvey, Step one, the Gospel and one the ghetto. Basking Ridge, New Jersey: Sonlife International Inc. 1983: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과 불우한 사람을 도와야 할 11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에의 순종(요5:3)으로부터 시작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그리스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넷째,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영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준다. 다섯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고통에 참여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역할을 떠맡고 그가 몸소 실행한 종의 도를 본따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그러한 생활양식은 축복과 보상을 가져다 준다. 여덟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다. 아홉째, 인간의 어려움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준다. 열 번째, 인간을 돕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므로 "억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10:31)는 성경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무 조건없이 행동하는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지고한 사랑의 행위이다(요일3:17-18).

1)빈곤의 실태

최근 한국사회가 IMF 구제금융에 뒤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극심한 경제 위기로 인해 상대적으로 물적, 지적 자본이 취약한 계층에게 실업이 집중되고, 또 장기실업 및 저임금 불안전 고용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층⁵⁰⁾의 증가로 인해 빈곤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생활고를 비판한 동 반자살 등 소위 '생계형 자살'과 더불어 카드빚과 같은 경제문제로 자살과 타살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정도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빈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한 현실점에서, 우리나라의 빈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⁵¹⁾ 또 빈곤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정부와 시민 단체가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계측의 방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파악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늘고 있으며, 실직자 수는 77만 8천여명 가운데 장기실직자 비율이 17%나 된다고 한다.⁵²⁾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빈곤층은 1994년 8.8%에서 2001년 1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50)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사회적 통념으로는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대개 빈곤자를 포함하는데 이때의 저소득층은 영세민을 포함하여 불안정 취업으로 생활하는 계층을 총괄하여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개념 정의는 단지 어려운 생활이라든 지 육체적인 곤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빈곤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는 사회적 상황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조흥식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소득층의 개념을 좁은 의미로 빈곤층 또는 중요치 않은 존재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빈곤자를 지칭하는 경우에도 주로 '영세민', '저소득층', '빈곤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빈곤자제를 사회구조적 역사적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흥식, "한국도시빈민연구의 현황과 사회복지학적 과제", 『사회복지연구』(창간호) (1989), p. 83.

51) 이두호 외, op. cit., p. 167. 저자는 빈곤인구를 계측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첫째, 빈곤선에 의한 규모, 둘째, 공적 부조대상자, 셋째, 계급 계층론적 관점에서의 규모, 넷째, 빈민운동론적 접근에 의한 규모 등으로 빈곤인구 계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있고, 최근의 청년실업 등 실업율이 2002년 6월 2.8%에서 2003년 6월 3.3%로, 청년실업률은 6.0%에서 7.4%로 높아지고 있어 빈곤층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⁵²⁾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수급자 135만명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긴 하지만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된 계층(189만명)과 정부 혜택이 없는 차상위 계층(250만명) 등을 합해 전체인구의 12%인 574만명이 '실질빈곤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계는 빈곤율 기준을 '최저생계비가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처럼 '평균소득 40% 이하로 잡을 경우, 빈곤율이 8.0%로 382만 5천여명으로 높아진다고 추정하고 있다.⁵³⁾ 또 김영모는 "국민 평균소득의 50%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약 13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빈곤층을 10% 정도인 460여만명(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0만명, 극빈빈곤층이 될 가능성이 큰 차상위계층 320만명)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생계비에 의한 절대빈곤 개념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⁴⁾

이태수는 한국사회의 최근 빈곤실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빈곤을 경험한 가구 중 60%가 1년 안에 다시 빈곤에 빠지는 '재빈곤 현상이 특히

52) 연합뉴스, 2003. 8. 4일자. 98년 13만명이었던 1년 이상 장기실직자 수가 1999년 24만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가 이후 계속 줄어들어 2002년 12만 6천여명으로 떨어졌으나, 경기불황이 심화된 올해 6월에는 IMF 때보다 더 많은 13만 4천여명으로 다시 늘어났다고 한다.

53) 왕진호, "차상위 빈곤층 지원대책 마련", 『나라경제』, 20003. 9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p. 74.

54) 연합뉴스, 2003. 8. 4일자. 빈곤율은 97년에는 2.8수준에 그쳤지만, IMF 직후 급증해 99년 7.3%까지 올라갔다. 이후 빈곤율은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으나, 2002년 현재 3.5%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 수로는 164만 8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55) 국민일보, 2003. 9. 6일자.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 정책토론 발제에서 그는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데도 현 정부의 참여복지론이 구정권과 비교해 새로운 것이 거의 없는 개선안 수준이라며, "자활사업 확대, 빈곤층 자녀와 고교교육비 지원 등 소극적인 탈빈곤 정책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포함시키고 기존의 예산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통합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심하다'며,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임시적인 지원에만 치중한 나머지 빈곤 탈출을 도와줄 정도로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⁶⁾ 이처럼 한국사회의 빈곤실태가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 및 빈곤율이 증가함으로 한국사회의 계층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것은 빈부격차의 확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취업자와 실업자간의 명확한 분열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차등화를 거쳐 다음 세대로 세습될 위험성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사회의 빈곤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열악한 형태로 재생산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문제는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적지않은 장애요소가 되리라고 본다.

(2)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

빈곤을 퇴치하고 극복하기 위하여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지만 개별국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된 나라에서는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잔여적 복지가 중심이 되고 있는 나라들에게서는 아직도 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된 나라들에서도 빈곤 경감에 따른 문제들, 즉 관대한 복지 급여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의존성을 낮추기 위하여 급여의 수준을 낮추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함과 더불어 소극적인 지원대책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을 통해 빈곤계층의 노동시장 통합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는 노동시장 상황이나 효율적인 노동공급 정책들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빈곤

56) 연합뉴스, 2003. 8. 4일자

율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곤완화와 의존성 탈피라는 두 정책 목표 간에는 쉽게 타협할 수 없는 상충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초까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라 절대빈곤층이 증가하였다.⁵⁷⁾ 이때 증가한 실업자들은 기본생활 영위조차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약자의 절대빈곤문제가 대두되어 왔으며, 심화된 빈곤문제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또 외환위기 이후 빈곤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한편으로 고소득층의 생활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좋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할 때 우리 사회도 마틴과 슈만(Martin & Schumann)이 지적한 20대 80의 사회와 같은 사회적 양극화⁵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게 된다. 정부도 이런 지적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정부의 주요한 정책방향 중의 하나로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정책들을 강화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였다.

지난 2000년 10월 이후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 '기본생활'의 제도적 보장을 주요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했다. 이는 빈곤문제를 해결키 위해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시킨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7) 황덕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2001 가을호, pp 31-59; 김재호, 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 분석 - 패널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추계학술회의(2001. 9. 1) 발표문; 안종범, 김철희, 전승훈, "빈곤의 실업의 원인과 복지정책의 효과",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1999년초까지 구조조정과 급격한 실업증가에 따라 절대빈곤층이 증가하다가 최근의 경제적 상황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면서 절대빈곤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이 연구에서 절대빈곤 계층이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득분배 상태가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급격히 악화된 이후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들이었다.

58) 20대 80 사회란 세계화와 관련하여 전지구적 수준에서, 그리고 개별국가 수준에서 20%의 사람은 좋은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과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80%의 사람은 불안정한 직장 혹은 실업의 상태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회를 말하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IMF 이후 20대 80 사회의 가시화가 중산층의 위기로 나타났고, 다시 부의부 빈익빈 현상의 사회의 양극화로 나타났다.

는 수급권자의 범위가 작고, 지급되는 생계비 액수가 적어 단순히 명분상의 제도가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법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⁵⁹⁾

최근에 이르러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약 130만여명 정도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벗어난 대상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또 실제 빈곤의 여부보다 제도에 해당하는 대상자인가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의 적용의 문제로 인해 차상위 계층인 신빈곤층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많은 제도를 만들어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상의 미숙함이 있기에 앞으로는 제도 운영의 묘미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사에게 나름대로의 재량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런가하면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됨으로 빈곤층 등 저소득계층이 크게 증가하였다. 문제는 이렇게 악화된 분배구조

5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부정확한 수급자 선정기준을 강화하다보니 실제로 수급권자와 생활여건이 거의 다를 바 없으나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빈곤계층'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토지소유, 주거면적, 자동차 소유여부 등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생활여위에 필요한 토지나 집 등이 현금으로 환산이 불가능하다라도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실제빈곤층의 규모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예산의 2%에도 못미치는 낮은 예산에 따라 수급자수를 맞추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또한 정작 최저생계비의 보장을 받는 수급자도 최저생계비 계층이 5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져 급격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중·소도시를 기준으로 생활비가 산정돼 물가가 비싼 대도시의 수급자들은 더 많은 생계비가 필요함에도 보장받지 못하는 기준 산정에 현실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초보장제에서는 '간주 부양비' 항목이 지나치게 높게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간주'된 가족들이 실제 그럴 능력이 없거나 수급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정부에서 수급자들에게 지불되는 생계비를 '간주 부양비' 만큼 삭감함으로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여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에서조차 빈곤층은 더욱 증가하고 소득불평등도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의 법제화 등 노동유연성의 제고,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요소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경제회복이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부는 사회복지의 확대나 조세개혁과 같은 재분배 정책의 강화 등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 직업교육정책, 의료정책의 강화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 미래의 빈곤을 예방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으로 약자인 빈곤층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과 최소생활보장을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장해줘야 할 최소한의 권리라는 것을 인식하며 국가 복지수준을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정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빈곤이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및 경제적 발전에도 적지않은 장애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빼앗긴 빈곤층에게도 개발가능한 잠재적인 경제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경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1) 사회참여자로서의 교회

여기서는 교회가 빈곤문제와 관련하여 국가의 공공복지체계가 우리나라의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에 정부가 사회복지의 책임의 일부를 민간복지단체가 분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차원과 더불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한 선교적 차원에서 사회참여를 살펴보

고자 한다. 교회가 종교적 기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능을 얼마 잘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사회는 교회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통하여 교회의 존재의미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회는 이러한 교회의 태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기독교의 진정한 사회참여의 형태는 사회봉사(social service)와 사회행동(social action)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⁶¹⁾ 이 두 가지를 분리시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든지, 또 봉사하기를 원한다면 대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활동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⁶²⁾ 따라서 빈곤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서비스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사회적 활동이 없이는 결코 해결되기가 어렵다.

문제는 교회가 정치사회적인 문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모두 가르쳐야 하며, 또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성경적 신앙과 정의를 고수하기 위하여 어떤 태도를 공적으로 표명해야 된다. 따라서 이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며,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⁶³⁾ 그러나 교회가 사회봉사조직체로서 어떤

60) 강춘근,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1년, pp. 2-3.

61) 존 스토트, op.cit., p. 28. 그는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으로 구분한다. 사회봉사는 구제나 자선활동과 같은 노력봉사를 의미하며, 사회행동은 정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뜻한다. 문제는 스토트는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을 구분함으로써 사회봉사의 개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62) Ibid., pp. 28-29. 그는 사회봉사와 사회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만약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습격을 받아 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조된다면, 무장강도를 소탕하기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만약 어떤 특정한 곳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면, 구급차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방지를 위한 교통 신호등 설치가 더 필요하다. 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일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굶주림을 몰고 오는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면서 사회봉사와 사회행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말하고 있다.

한 정치사회적 활동을 취함에 있어서 성경적인 근거⁶⁴⁾를 따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교회가 처한 신학적인 입장과 경향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가급적 교회가 사회현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독교인 개인의 자격으로는 참여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조직체인 교회가 사회정치적 활동 분야에는 개입하는 것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⁶⁵⁾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봉사 문제라면 교회는 교인 수가 적은 소규모 교회이든지 대형교회의 사회복지기관이든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다른 특별한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은사와 소명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가령 교회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전문분야 그룹”이나 “연구 및 활동 그룹”으로 모이도록 지도하거나 감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전문가들의 그룹들이 상호보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어떤 규모이든지간에 그것에 속한 그룹 등을 통해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그룹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관심과 활동을 매우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 나아가 교회가 단독으로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면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어진 선교단체나 봉사단체 그리고 기독교 NGO나 시민단체와 상호협조함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63)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An Evangelical Commitment, The Grand Rapids Report* (paternoster, 1982), p. 52

64) 존스토틀, *op. cit.*, pp. 31-46를 참조하십시오. 사회참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여러가지 관점에서 탁월하게 서술하고 있다.

65) 교회가 사회참여를 할 때는 성서적 합의가 명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따라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논문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연구” pp. 63-64를 참조하십시오.

66) *Ibid.*, p. 47.

헨리(Carl Henry)는 이러한 교회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간접적인 복음전도사업이 된다는 것이 사회참여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서는 안된다”⁶⁷⁾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상에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사회참여의 가장 큰 이유가 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서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선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직접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봉사활동과 그런 고통을 창출하는 사회의 제도적 악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기에 교회의 사회참여는 사회구조적 봉사와 사회구조적 봉사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2) 빈곤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

교회의 사회적 활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회적 책임과 분리될 수가 없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필수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있다.⁶⁸⁾ 이것은 오늘의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복음전파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복음전파는 주님의 재림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복음전파를 할 때 입으로 전하는 형태의

67) Carl F. H. Henry, A plea for Evangelical Demonstration (Grand Rapids: Baker, 1971), p. 112.

68) William Temple, op. cit., p. 14. 박종삼 교수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를 사회복지활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국 기독교가 통계적으로 볼 때 주목받을 만한 사회집단으로 성장했고, 둘째, 한국교회가 조직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한국의 여러 종교단체 중 가장 활발히 활동하여 사회적 가시력이 높아졌기 때문이고, 셋째, 기독교 교리는 사랑과 봉사의 측면을 강조하는 종교로, 사회에서 높은 사회윤리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사회봉사의 참여가 낮다는 것, 넷째, 한국교회의 재정 능력을 감안할 때 종교활동비와 비교해 보면 사회봉사를 위한 재정 할당이 크게 미약하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모습과 더불어 손과 발로 전해야 할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이며 한국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최근 빈곤의 실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1000만 명 이상의 교인으로 4명중의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가난한 자도 그에 비례하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십일조와 구제헌금은 교회조직 자체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되갚을 힘도 없는 무력한 가난 속에 속박당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거룩하고 아낌없는 낭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경은 근본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 즉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3) 빈곤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

교회는 빈곤문제의 올바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최근의 실태와 관련하여 성경적인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분명한 사실은 빈곤을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로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개인 탓도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빈곤층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빈곤을 사회문제로 여기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빈곤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가령 교회가 소속된 지역공동체에서 빈곤문제가 심각하다면 먼저, 빈곤이 초래되는 복잡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교회는 성경과 교회역사에서 가

난한 자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실천하여 왔는지를 깊이 논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입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성격인지 아니면 사회구조적 성격인지를 구분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련된 빈곤문제들을 이슈화시킬 행동계획을 세워야 한다.⁶⁹⁾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개교회 여건과 능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해결방안이 용이하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면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하기에 지역교회의 연합차원이나 교단차원이나 기독교 연합기구를 통하여 빈곤문제들을 이슈화시키고 행동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모든 일은 교인 개개인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구역회(속회), 선교회 등의 집단수준에서, 또 개교회 수준이나 지방회(노회, 연회)수준, 교단수준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순수하게 구제와 봉사를 위한 예산이 할당되어야 하고, 빈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교육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들을 구체적으로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인적자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논의를 근거로 한국교회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두 가지 측면, 즉 정치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차원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이웃이나 지역사회에서 구제나 자선활동 같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1)사회구조적 측면

첫째, 사회행동 규범 제시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성경에 기초해 가난한 자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람들이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제시해 준다. 성경은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들을 섬기며

69)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서울: 대학출판사, 2002), pp. 216-217.

들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출애굽기 23:6-9, 레위기 19:9-10, 신명기 24:14-15). 이러한 요구는 단지 말로만 요구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정되었다. 가령 십일조 제도, 안식일 제도 그리고 회년제도 등은 재정일치 시대에 종교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법적이고 제도적인 차원까지 담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누가복음 10:25-37)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여행자들이 계속해서 습격을 받아 늘 선한 사마리아인에 의해 구조된다면 무장강도를 소탕하기 위한 법률 개정과 더불어 그 환경을 바꾸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빈곤문제의 성격에 따라 사회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실직자가 속출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불안전 취업과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고 장기실업자와 노숙자로 전락하게 된다. 따라서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고통이 이루말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이 일정기간 지속되다 보면 심리 사회적 고통으로 인해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본다. 물론 빈곤이 자살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가 많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절대적인 빈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가정의 빈곤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갑작스러운 빈곤사태에 빠진다는지, 개인적으로 급격한 소득저하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당하게 될때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빈곤층이 당하는 위기와 고통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할 수가 있다. 이때 교회는 실직노숙자 지원 프로그램이나 푸드뱅크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적절한 위기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나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로 이러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있을 것이다.

세제, 이슈 제기자로서의 역할이다. 이슈란 어떤 문제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집중시켜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 관련된 사람들의 이해갈등이 나타난 경우이다. 이때 이슈 제기자란 일정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문제를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인식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빈곤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문제를 감추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설령 사회에 알려려고 해도 이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한 자원과 수단이 없거나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는 이들을 대신해서 이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를 정부나 국민을 상대로 인식시키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이슈제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교회의 이러한 역할들은 사회행동가(social actor)로서 그리고 의식집단(conscious group)으로서 수행되어질 수 있다.⁷⁰⁾

(2)사회구호적 측면

첫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빈민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해주기 위한 일환으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은 지역사회에 속한 빈곤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도울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생계를 지원하는 일이다. 인간의 욕구중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생존에 대한 것이므로 교회는 그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관련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의 인간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빈곤자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가령, 무의탁 빈민들에게 제공하는 밑반찬 서비스라든지, 빈민지역에 방과후 공부방, 놀이방, 탁아소, 그리고 야학 운영 등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빈곤층 노인들에게 의료봉사를 하는 일도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빈민들이 자신의

70) 김기원, op. cit., p. 217.

힘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지원서비스 등도 제공해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는 교회의 크기와 성도, 재정능력 그리고 시설보유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원조달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속한 빈민을 도울 수 있는 재원을 자발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해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재원은 교회에 부속된 토지와 건물 그리고 각종 헌금이 있다. 그중 십일조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것은 목회자의 생활이나 교아, 파부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이 정한 사회봉사주일에 드리는 헌금을 빈민구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구역(속회)예배 때 드리는 헌금을 지역에 있는 사회적 약자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헌금으로 사용한다면 이 모임의 성격과 정신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빈민구제 모금을 위한 특별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정부나 사회복지기관들과는 달리 지역사회 주민이 곧 교인이므로 주민의 문제와 욕구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누가 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이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실현가능한지 등에 관해서 지역사회의 교회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따라서 지역교회는 이러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그가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혜대상자에 가장 적합한 빈곤퇴치프로그램이나 빈곤완화프

71) 허구생, op. cit., p. 47. 당시 교회 예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그라티아누스(Gratian)가 편역한 『데크레툼(Decretum)』에 수록된 자료에 의하면 5세기 경부터 교회의 예산은 3. 4개의 용도로 구분되어 지고 있다. 주교의 생활비 및 성직자들의 봉급, 교회건물의 신축과 보수 유지, 그리고 빈민구제 예산이었다. 그런데 이 구분이 균등분할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타이어니(Tiemey)는 용처구분을 담은 교황교서들의 본질은 대수적 균등 분할이라기 보다는 교회 예산의 사용목적울 강조하는데 있었을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그래를 개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⁷²⁾ 개발된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에 제공해 줄 수 있다.

네째,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 사례관리자는 수혜대상자를 확인하고 그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찾아내고, 서비스 사용계획을 세우고, 수혜대상자와 자원을 연결시키고,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서비스 전달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 교회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확인하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찾아낸 후 당사자들이 동의를 얻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를 연결시켜 주고, 양자간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교회는 빈곤으로 인한 고통가운데 살아가는 이웃에게 힘이 되고, 자원제공자에게는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⁷³⁾

다섯째, 사회교육자로서의 역할이다. 교회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근면하게 생활할 것을 가르치며, 그가 속한 사회의 행동기준이나 건전한 문화를 수용하고,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원리나 기술을 학습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가령 영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비롯한 소양교육을 통해 빈곤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현재의 빈곤상태로 부터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다.⁷⁴⁾ 또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빈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희망적인 자립생활의 의지를 심어줄 수 있다.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72) 김기원, op. cit., p. 219.

73) Ibid., pp. 218-219.

74) Ibid., pp. 219-220.

특히 가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빈곤층 자녀교육에 있다. 왜냐하면 빈민층이 계층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필요에 따라 교회는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빈곤자를 돕는 자원봉사 교육이나 실직노숙자나 부랑인들을 위한 자활 및 재활 프로그램과 같은 사회적응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사회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여섯째, 자원봉사 활동가로서의 역할이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란 국가 권력이나 외부압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활동을 말한다.⁷⁵⁾ 또한 자원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정신이다. 즉 정신적 보람과 만족 이외에는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 무보수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예수는 구제를 할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마태복음 6:3)고 강조한다. 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복음 10:8)라고 교훈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서의 가르침은 한걸음 더 나아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은총을 입은 것에 대한 감사의 응답임을 가르치고 있다.⁷⁶⁾

따라서 교회는 지역사회 빈민과 노인들을 위한 간병활동, 가정봉사 서비스, 도시락 배달, 빈민지역의 탁아교육, 방과후 공부방, 호스피스 등과 같은 분야에서 필요한 자원봉사를 제공하고 또 자원봉사 수요를 파악하고, 활용가능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필요한 곳에 자원봉사자를 공급해주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75) 강춘근,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제 19회 기독교문학회, 2002, p. 111.

76) 강춘근, *op. cit.*, 2002, p. 122.

V. 나가는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시대인 지금 국민이 생명을 끊을 만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고통과 이픔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대답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동시에 빈곤문제를 단순히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부터 출발하였다. 기본적으로 교회가 빈곤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고 또 해결되어질 수도 없다. 그러나 교회는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정의 실현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나뉠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회문제를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다른 종교단체와 비교하여 볼 때 나뉠대로의 사회 참여 활동을 잘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하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매우 많이 커졌고, 또 앞으로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요구된다. 또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교회중심적인 차원에서 교회성장에 생명을 걸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나라 중심적인 관점으로 성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시각을 교회 안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의 사회참여 행위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선교를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사회봉사가 교회봉사로만 이해되었고, 또 사회구호적인 봉사roman 비교적 많이 접근되어 왔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인 측면의 봉사는 진보적인 성향을 띤 교회의 역할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교회의 사회참여는 사회봉사적인 활동과 사회구조적인 활동이 양 측면이 상호보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러한 차원에서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였다.

이제 한국교회는 1997년 말에 부딪친 IMF 외환위기 이후의 경제사회적인 어려움을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로서 사회 봉사 기능을 수행하고 또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시대적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한국사회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공동체로서 다시 거듭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신빈곤층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삶의 의욕을 상실해 가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교회는 위로와 소망과 용기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물질적, 인적, 시설, 정보, 영적 자원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사회참여 활동이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과거의 전통적인 단순한 자선활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으로 무장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교회의 빛을 드러내며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야고보서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경건 즉, 즉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경건(야고보서 1: 27) 중에서 한국교회가 비교적 후자의 것에 충실하여 왔다면, 이제는 전자에서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는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경건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옥모 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2003.
2. 강준근,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 『고령화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제 19회 기독교문학회, 2002.
3. 강준근,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년.
4. 금재호, 김승택, “빈곤의 원인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년 추계학술세미나』, 2001. 9. 10
5. 김기원, 『기독교사회복지론』, 서울: 대학출판사, 2002.
6. 김성광, 『초기 교부들의 신앙과 신학』, 서울: 강남출판사, 1997.
7. 김영모, 『빈곤, 가족해체, 시설보호』, 서울: 중앙대학교출판부, 2000.
8. 김영모 외, “한국 빈곤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정책연구』, 제 1집,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2.
9. 김태성, 손병돈,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서울: 청목출판사, 2002
10.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안내서』,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사회부 2000
11.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일신사, 1995.
12. 박순일 외 5인, “우리나라의 빈곤화 요인분석과 대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13. 박영호, 『기독교와 사회복지』, 서울: 기독교문선교회, 2001.
14. 박용순, 『빈곤과 자립』, 서울: 학지사, 2001
15. 박종삼, 『교회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16. 신인현, 『빈곤에 도전하는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17. 왕진호, “차상위 빈곤층 지원대책 마련”, 『나라경제』, 20003. 9월호, KDI 경제정보센터.
18. 이두호 외, 『빈곤론』, 서울: 나남, 1991.
19. 이원규, 『한국 사회문제와 교회공동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20. 임희섭, “한국에 있어서의 빈곤문제”, 『한국사회개발연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21. 조홍식, “한국도시빈민연구의 현황과 사회복지학적 과제”, 『사회복지연구』(창간호) 1989.

22. 주성수, 『생산적 사회복지정책』,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2000.
23. 정경배, 최일섭 외, 『생산적 복지를 넘어서』, 서울: 나남출판, 2003
24. 최일섭, 조성희, 『실업과 가족해체』, 서울: 집문당, 2000.
25. 최일섭,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출판, 2000
26. 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편, 『상황과 복지』제 9호,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27. 황덕순,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2001 가을호.
28. 허구생, 『빈곤의 역사, 복지의 역사』, 서울: 한울, 2002..

29. A. Gelin, *The Poor of Yahweh*, Collegeville, MN: Liturgical Press, 1964.
30. Balkin, *Self-Employment for Low-Income People*,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69.
31. D. M. Dinitto & T. R. Dye,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83
32. Ernst Bammel, "ptochos," in Gehard Kittel and Gerhard Friedrich, 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Geoffrey W. Bromiley, 10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68.
33. Claerbaut, David., *Urban Ministry*,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92.
34. Michel Mollat, *The Poor in the Middle Ages: An Essay in Social History*, trans. by Arthur Goldhammer, Yale University, 1986,
35. J. Gans, "The Usues of Poverty : The Poor pay All," *Social Policy*, Vol. 2, 1971.
36. Johnson, F. Ernest, protestant social work. In R,H,Kurtz (Eds.) *Social work year book*
37.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41.
38. Karl F. H. Henry, *A plea for Evangelical Demonstration*, Grand Rapids: Baker, 1971.
39. R. C. Sproul, "Who Are the Poor?" *Tabletalk* 3, no July, 1979.
40. Richard J. Mouw, "Thinking about the Poor" , *Prophetic Vision and Economic Realities*
41. Grand Rapids: Eerdmans, 1989.
42. T. J Sullivan et al., *Social problems : Divergent Perspectives*, New York: John Wiley, 1980.
43. V. George & P. Wilding,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4.

44. 다이애너 S. 리치먼드 갈랜드 편, 『교회사회사업』, 이준우 역, 서울: 인간과 복지, 2001.
45. 브라이언트 엘마이어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선교』, 장훈태 역, 기독교문선선교회, 2000.
46. 윌리엄 템플, 『기독교시민의 책임』, 김형식 역, 서울: 인간과 복지, 2000.
47. 엘로이 부에노 델 라 푸엔테, 『선교학』, 김광태 역, 서울: 생활성서, 2003.
48. 존 스트리트, 『현대사회문제와 기독교적 답변』,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선선교회, 1989.
49. 칼 프리츠 다이버, 『교회의 정체성과 사회봉사』, 황금봉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50. 기독교문사, 『기독교대배과사전 제 1권』, 1994.
51. 『연합뉴스』, 2003. 8. 4일자.
52. 『국민일보』, 2003. 9. 6일자

강춘근 목사는 대구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실천신학 전공)과, 동대학 사회복지대학원(MASW: 기독교사회복지 전공)에서 공부하였다. 현재는 천안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기독교복지학” 전공) 중에 있다. 인천에서 한국성결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고 있으며, 국제채플린선교복지연구원에서 <교회복지론>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이사, 그리고 DEW 실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정보화사회의 신세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1997), “사회복지선교를 위한 교회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2001), “고령화사회의 노인의 사회참여와 자원봉사활동”(2002), “이주노동자와 사회복지선교”(2002) 등이 있다.